# 하나님만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

## (사무엘상 31:7~13)

7.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8.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벧산 성벽에 못 박으매
11.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벧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칠 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

강릉의 초당마을은 두부로 유명한데 이 두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두부를 드시러 가셨다가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오신 어떤 집사님께서는 '짬뽕순두부'라는 것을 드시고는 '야! 사람이 이런 걸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시면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 초당 순두부와 관련해서 제게도 지울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제가 강릉에 살기 시작한 6년 동안에 세 번을 오셨습니다. 초당 두부 집에 모시고 간적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장인어른께서 몸져누우셨을 때에야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부를 좋아하셨는데 집사람이 두부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인어른께 두부를 대접하면 실례가 될 줄 알았습니다. 두부는 천지에 넘쳐나는데 이제는 장인어른께 대접해드릴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기회 상실로 인한 안타까움을 경험한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공허감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짐작해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삶은 한 마디로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기회의 기간을 산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 기회는 나 자신을 실현하고 비전과 꿈을 이룰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수입이 있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단란한 가정을 꾸릴 기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며, 출세를 하거나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기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 일정한 기간의 생명을 허락받아 사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기회가 아닌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인 이유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선택이 아닌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변화산에서의 체험으로 미루어 볼 때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뵈면 언제나 새롭게 열광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전5: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천국에 가면 '아! 항상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마음이 육체와 전인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5감관을 통해서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 이 기간이 하나님만을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돈을 좋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억만금을 주더라도 그것은 휴지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이 변화산 체험을 할 때 산 아래에서 이루고 싶어 했던 모든 인생의 비전과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가장 좋은 것들조차 잊어버리게 하는 분이 하늘나라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씨름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뿐이지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식이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삶은 죽기 전에 죽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기 전에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가 언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육체로 인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마음으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간 상태에서 육체도 죽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삶에서 극단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면 저는 가짜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그 환난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집안이 어려울 때에

삼일을 금식하면서 돈 달라고 기도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난 뒤로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도는 항상 지금 사람들의 비난과 인간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돈이 문제되는 가운데 육체가 아픈 등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으면 가짜 목사이고 가짜 선민이고 가짜 자녀라는 커트라인을 정해놓았는데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는 광경이 참 비참합니다.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내가 사울보다 나을 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렵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을 그저 하나님의 섭리로만 받아들이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우리 마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산 사울의 결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신앙의 논리로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비참한 결말에 왜 요나단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가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신앙인들의 죽음의 모습이 비참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현상적 죽음에 반드시 심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죽음에는 심판적 의미의 비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죽었다고 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으며,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고 사자 밥이 된 자도 있고 불에 타서 죽은 자도 있습니다. 이렇듯 비참한 죽음이 많은데 현상만 보고 심판적 요소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울 왕과 요나단은 동일한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삶은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하나님만을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만료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본 사람의 죽음은 모범생이 졸업할 때 상을 받는 순간이고, 반대로 그 기회를 놓치고 산 사람은 이제부터 참 멸망으로 진입하는 순간이 됩니다. 즉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해 본 사람들에게는 죽음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비전은 죽음이므로 사도 바울은 고후5: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좋은 왕이 되라고 왕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왕 됨의 실질적인 수행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었습니다. 왕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이고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왕위를 주신 이유는 그 왕위보

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으나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한 사울을 더 살게 하셨던 이유는 여전히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당장 벼락을 쳐서 죽이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우리)들을 살려두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죽음으로 인해서 기회가 끝나기 전에, 소중한 것들을 붙잡았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삶의 의미는 십자가 생활화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할 자로 받아 들일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부음 받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왕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도 앞선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의 고난을 통해 왕위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체질화시키셨지만, 요나단은 애초에 왕위에 오를 자였음에도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셨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정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멸망으로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망하도록 섭리하시려는 그 사람을 아버지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훌쩍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을 아버지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요나단에게는 마음의 길과 몸의 길이 갈라지는 참으로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고 그 하나님께 합한 자였던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몸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앙의 아버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최후가 비참한 심판으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몸도 그 길에 동참한 것입니다. 사울이 아버지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아버지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이 가는 길을 멸망에 묶어버렸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가장 명확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은 비참함이 합당한 사람의 죽음뿐입니다. 다만 요나단은 자발적으로 비참함에 자기 몸을 넘겨주었기에 역설적으로 그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죽음이 찬란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은혜롭게도 병 없이 살다 심장마비로 깨끗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병으로 고생하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병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병을 내 마음의 암을 고치는 은혜로 여기다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냄으로 그 비참함은

오히려 그 죽음을 더 찬란하게 합니다. 요나단은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위해 비참함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로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울 왕가에 포함된 요나단의 비참한 죽음은 비참함에 내어준 죽음으로 그 비참함을 통해 더욱더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비참함에까지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 보이는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의 정도가 더욱 강렬하게 전달되는 것은 전혀 비참함의 죽음과 어울리지 않는 분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몸의 최후를 사울에게 일치시킨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저주 받은 자리에 자신을 일치시키셨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나단의 죽음이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될 죽음의 앞선 믿음의 표본으로 본문에 제시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요청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요나단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에만 요나단의 비참한 죽음이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뜻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을 아버지로 허락하신 그 뜻을 보전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뜻을 위해 자신의 몸을 비참한 최후에 허락함으로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해볼 기회를 극한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주어진 돈 자녀 건강 등의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모든 것에 빼앗겼던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아버지께 마음을 드릴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죽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만을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